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Classification

여지숙,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wuhaha@chol.com
오동근,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odroot@kmu.ac.kr

Ji-Suk Yeo, Dept. of Lib. & Info. Sci., Grad. Sch. of Kei-Myung Univ.
Dong-Geun Oh, Dept. of Lib. & Info. Sci., Kei-Myung Univ.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사용한 분류표에 대한 것으로, 먼저 이 분류표에 대한 편찬경위 및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관련 있는 분류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영향관계를 밝혀보았다.

1. 서론

조선총독부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前身)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官立)도서관 이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단순한 관립이 아닌 조선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정책중심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었다(김남석 1991, 109).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 다시 개관하였으며,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조선총독부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진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역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와 관련해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분류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세하게 분석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사용한 분류표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이 분류표와 영향관계에 있는 분류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 것은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편찬연도와 경위 그리고 참조한 분류표나 이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2.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특징 및 분석

2.1 편찬경위 및 특징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작성연도와 작성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24년 4월에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사서로 부임한 島崎末平가 주축이 되어 편찬한 것으로 추측된다(박희영 1971, 200).

또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大正12年(1923) 경성헌병대청사의 일부를 사용해 가사무소(假事務所)를 설치하여 개관준비에 착수하였는데, 먼저 신서부 일만이천책의 분류정리를 완료하여 大正14年(1925)에 일반에 공개하였다”(朝鮮總督府圖書館略史 1935)는 내용이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개관 전에 이미 신서부에 한해서만큼은 분류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신서부분류표에 한해서 개관 전에 편찬되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 분류표를 각기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 ② 십진분류법을 채택하였다.
- ③ 십진식이지만, 열한 번째 주류로 조선문을 두어 조선과 더불어 밀접하게 관련된 만주, 몽고, 시베리아지역의 도서를 포함시켰다(조선총독부도서관 1937, 1).
- ④ 주류의 각 문(門)은 두개로 크게 대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전체 도서는 스무개의 대분류를 기초로 한다(조선총독부도서관 1937, 4).
- ⑤ 편찬자와 편찬연도 및 주제배열의 이론이 명기(明記)되어 있지 않다.
- ⑥ 보조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색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⑦ 분류기호는 혼합기호를 사용하였다.

2.2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분류표의 분석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편찬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인쇄연도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신서부분류표(新書部分類表)가 1929년(昭和4年) 3월에 인쇄되었으며, 고서부(古書部) 및 양서부분류표(洋書部分類表)는 1931년(昭和6

年) 7월에 인쇄되었다.

이 세 분류표의 분류항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주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세 분류표의 주류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新書部分類表	분류기호	古書部分類表	洋書部分類表
哲學 宗教	第一門	哲學 宗教	1 Philosophy Religion
教育 社會	第二門	教育 社會	2 Education Society
法律 政治	第三門	法律 政治	3 Law Politics
經濟 統計	第四門	經濟 統計	4 Economics Statistics
語學 文學	第五門	語學 文學	5 Languages Literature
歷史 地理	第六門	歷史 地理	6 History Geography
理學 醫學	第七門	理學 醫學	7 Science Medicine
工學 軍事	第八門	工學 軍事	8 Engineering Army
產業 藝術	第九門	產業 藝術	9 Industries Arts
全書 雜纂	第十門	全書 雜纂	10 General works Miscellany
朝鮮 附 滿洲 蒙古 西伯利亞	朝鮮門	朝鮮 附 滿洲 蒙古 西伯利亞	K Korea(added Manchuria, Mongolia and Siberia)

<표 1>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분류표의 주류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이 세 분류표의 주류는 동일하다. 주류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주류배열의 순서를 인문 및 정신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공학의 순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인문과학분야 및 사회과학분야에 6개,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에 2개, 예술분야에 1개의 주류를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류의 마지막에 조선문(朝鮮門)을 따로 두어 조선 및 만주, 몽고, 시베리아와 관련된 자료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조선문의 강목전개는 주류와 조기성을 갖도록 동일하게 전개하였다. 이 세 분류표는 주류에서 동일하지만 그 이하 항목의 전개에서는 각기 다르게 전개하였다.

3.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 및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의 비교분석

3.1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비교

島崎末平이 당시 既設圖書館의 분류표를 두루 수집하여 참고하였으며, 분류표 작성을 명한 관장 荻山秀雄이 京都大學출신이므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를 작성할 당시 주로 참조

한 분류표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원종린 1980, 34).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은 1899년 도서관 창설당시부터 사용한 분류표가 있었으나, DDC의 우수성을 받아들여 1902년(明治35년) 십진식분류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사용하였다(京都大學附屬圖書館 1961, 135). 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주류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	분류기호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宗教 哲學 教育	第一門	哲學 宗教
法律 政治	第二門	教育 社會
經濟 社會	第三門	法律 政治
文學 語學	第四門	經濟 統計
歷史 地理	第五門	語學 文學
自然科學	第六門	歷史 地理
醫學	第七門	理學 醫學
工學 藝術	第八門	工學 軍事
產業	第九門	產業 藝術
全書 叢書	第十門	全書 叢書
	朝鮮門	朝鮮 附 滿洲蒙占西伯利亞

<표 2>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주류비교

3.1.1 법률, 정치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법률을 크게 법률총기와 국법학으로 나눈 반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법률총기와 형법, 민법, 상법, 재판소구성법, 국제공법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이 두 분류표의 법률, 정치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2-00 법률총기	3-00 법률 總記
	3-10 형법
2-20 국법학	3-20 민법
2-30 의원총기	3-30 상법
2-40 정치학	3-40 재판소구성법
	3-50 국제공법
	3-60 정치 總記
	3-70 의원 의회사
	3-80 행정
	3-90 외교

<표 3>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분류표의 정치, 법률의 비교

정치는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의원총기와 정치학으로 대별하여 전개하였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경우 정치총기, 의원 및 의회사, 행정, 외교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3.1.2 어학, 문학

먼저 두 분류표의 어학, 문학 관련항목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4-00 문학총기	5-00 어학 總記
4-10 수사학 용변법	5-10 국어
4-20 국문학총기	5-20 동양제국어
4-30 物語 草紙 日記	5-30 문학 總記
4-40 중세근대소설	5-40 국문학
4-50 외국문학사	5-50 室町時代小説
4-60 언어학총기	5-60 운문학
	5-70 支那文學
4-80 영어	5-80 외국문학
	5-90 소년도서 童話 少年理科叢

<표 4>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어학, 문학의 비교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어학은 어학총기와 영어로 크게 대별된다. 이에 반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어학은 어학총기와 국어, 동양제국어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문학의 경우 두 분류표 모두 다섯 개의 강에 문학총기, 국문학, 형식별 문학, 외국문학 등을 배정하고 있는 점이 비슷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마지막에 소년도서관련항목을 배정한 점이 다르다.

3.1.3 역사, 지리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역사는 크게 역사총기와 시대별 일본역사, 동양사와 전기로 대별된다. 전기를 별도의 강으로 배정한 것이 전기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 역사는 크게 역사총기, 일본국사, 풍속사, 동양사, 서양사, 황실로 전개된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지리를 하나의 강에 배정하였으며, 그 목은 동양지리, 일본지리, 중국지리, 외국지리로 대별하여 전개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세 개의 강을 배정하였으며, 지리총기, 本邦地理, 아세아지 등으로 전개하였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는 하나의 목에 전개되었던 외국지리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는 네 개의 목에 배정되어 좀 더 상세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분류표의 지리, 역사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5-00	역사지리총기	6-00	역사 總記
5-10	安土桃山時代	6-10	
雜	雜新史料	6-20	국사 總記 史論
		6-30	풍속사
5-40	동양사총기 各國史	6-40	동양사
		6-50	서양사
5-60	전기총전	6-60	황실
		6-70	지리 總記
5-80	지리총기	6-80	本邦地理
京	京都郷土資料	6-90	아세아지리

<표 5>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역사, 지리의 비교

3.1.4 전서, 잡찬

먼저 이 두 분류표의 지리, 역사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10-00	百科全書	10-00	全書 叢書
10-01	叢書 (일본)	10-01	全集
10-02	同 (중국)	10-02	事實 類書
10-03	類書 拔萃(일본)	10-03	隨筆 雜錄
10-04	同 (중국)	10-10	書目
10-05	隨筆 (일본)	10-11	書誌 解題
10-06	同 (중국)	10-20	官報
10-07	雜誌 (일본)	10-21	新聞
10-08	同 (중국)	10-22	雜誌
10-09	新聞	10-23	年鑑
10-10	學術總合刊行物	10-30	學會 俱樂部
		10-35	展覽會

<표 6>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전서, 잡찬의 비교

<표 6>은 두 분류표의 第十門에 전개된 모든 강목들이다. 분류항목에 사용된 용어는 다르지만,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의 第十門에 전개된 분류항목이 모두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 전개되어 있다. 단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일본과 중국으로 나누어 전개한 것이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第十門도 역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더 상세히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3.1.5 철학, 종교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종교는 크게 종교총기와 개개 종교별로 전개하였다. 이 두개의 강은 각각 여덟 개와 아홉 개의 목으로 전개하였는데, 이 중 특히 불교에 대해 일곱 개를 배정하였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의 종교는 동양종교에 특히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종교총기, 신도, 불교, 크리스도교, 도교에 각각 하나의 강을 배정하여, 각 종교에 대해 한 개의 강을 배정함으로써 대체로 균등하게 전개하였다. 이 두 분류표의 철학, 종교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1-00	종교철학교육총기	1-00	철학총기
		1-10	심리학
1-20	불교총기	1-20	윤리학
		1-30	
1-40	철학총기	1-40	동양철학
1-50	교육총기 교육학	1-50	종교총기
1-60	중국철학총기	1-60	신도
		1-70	불교
1-80	일본사상총기	1-80	그리스도교
		1-90	도교

<표 7>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철학, 종교의 비교

철학에 대해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철학총기와 중국철학총기, 일본사상총기

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중국철학과 일본사상을 하나의 강에 배정하여 특히 비중을 많이 두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철학 및 윤리, 심리학에 하나의 강을 배정하여 균등하게 비중을 두었다.

3.2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의 비교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은 森清가 1928년에 발행한 청년도서관원연맹기관지인 『圖研究』에 게재한 것으로, 이를 증보·수정하여 NDC 초판을 만들었다(森清 1939, 9). 森清이 이 안(案)이 DDC의 체제를 따랐으며, 일본실정에 맞지 않는 종교, 언어, 문학 및 역사 부문이 수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森清 1939, 20).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분류표는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은 의 편찬연도보다 빠르다. 두 분류표를 비교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밝혀 본다.

3.2.1 주류의 비교

먼저 이 두 분류표의 주류를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다.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朝鮮總督府圖書館分類表	
000	總記 General works	第一門	哲學 宗教
100	哲學及宗教 (精神科學) Spiritual sciences	第二門	教育 社會
200	歷史科學 Historical sciences	第三門	法律 政治
300	社會科學 Social sciences	第四門	經濟 統計
400	自然科學 Natural sciences	第五門	語學 文學
500	工藝學, 有用技術 Technology, Useful arts	第六門	歷史 地理
600	產業 Industrial arts	第七門	理學 醫學
700	美術 Fine arts	第八門	工學 軍事
800	文學 Literature	第九門	產業 藝術
900	語學 Linguistics	第十門	全書 雜纂
		朝鮮門	朝鮮 附 滿洲蒙古 西伯利亞

<표 8>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주류비교

두 분류표 모두 십진분류법이나, 기호법에서 앞서 언급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는 달리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은 DDC와 동일하게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한 순수기호법을 채택하

였다.

주류에서 이 두 분류표는 철학 및 종교에서 동일하며, 부분적으로 공학과 산업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다음에서 살펴볼 류는 종교와 공학, 산업이다.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가 일본에서 출판된 책과 서양에서 출판된 책에 공동으로 적용되므로,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와 더불어 양서부분류표도 비교해 본다.

3.2.2 종교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종교는 일본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부문이다. 먼저 세 분류표의 강단계를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
100 종교 및 철학	1-00 철학	1-00 Philosophy
110 철학	1-10 심리학	1-10 Logic
120 동양철학	1-20 윤리학	1-20 Psychology
130 서양철학		1-30 Ethic
140 심리학	1-40 동양철학	1-40 Religion
150 윤리학	1-50 종교 용기	1-50 History of religion Mythology
160 종교, 신학	1-60 신도	1-60 Christianity Bible
170 신도	1-70 불교	1-70 Shintoism
180 불교	1-80 그리스도교	1-80 Buddhism Brahmanism
190 기독교	1-90 도교	1-90 Mohammedanism

<표 9>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양서부분류표의 종교 비교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 신도-불교-기독교의 순서가 일치한다. 이것은 NDC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에서는 기독교-신도-불교의 순서이다. 이것은 양서전용분류표라는 점에서 기독교를 특별히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3.2.3 공학

공학에서 이 세 분류표는 공학에서 다섯 개의 강이 일치하는데, 그 순서는 공학-토목-건축-기계공학-전기공학-광산학이다. 즉 공학과 관련된 모든 강단계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

한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의 공학의 전개순서는 NDC에 그대로 연결된다. 공학관련 항목을 비료하면 <표 10>과 같다.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
500 공예학, 유용기술	8-00 공학	8-00 Engineering
510 토목공학		8-10 Civil engineering Surveying
520 건축학	8-20 토목공학	8-20 Architecture and building
530 기계공학	8-30 건축 船軍	8-30 Mechanical engineering Aeronautics
540 전기공학 및 광업	8-40 기계공학	8-40 Electrical engineering
550 광산학 및 광업	8-50 전기공학	8-50 Mining engineering
560 조선학 및 해사	8-60 광산학	8-60 Army
570 응용화학 및 광업	8-70 군사	8-70 Military science
580 공업		8-80 Naval science
590 가정학		8-90 History of wars

<표 10>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양서부분류표의 공학 비교

3.2.4 산업

산업에서 이 세 분류표는 산업-농업-원예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게다가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는 수산업을 강단계에 두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는 수산을 9-30 아래의 목으로 두고 있다. 이 순서는 NDC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신서, 고서, 양서를 위한 분류표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이 분류표의 편찬연도와 편찬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측하건데 최소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개관할 당시부터 신서부분류표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관련된 제 분

류표들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기존 도서관의 분류표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를 주로 참고한 것으로 사료된다.

- ③ 또한 NDC 초판이 나오기 전 그 안(案)으로 제시된 和漢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비교해본 결과, 특정 문(門)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남석. 1991.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 활동』. 대구 : 계명대출판부.
- 박희영. 1971. 국립중앙도서관사. 『도서관』, 26(2): 4-40.
- 원종린. 1980. 『박봉석의 도서관사상 연구: 그의 업적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朝鮮總督府圖書館. 昭和12年[1937]. 『新書部分類目錄: 上卷』. 京城 : 同圖書館.
- 京都大學附屬圖書館 編. 소화26년[1961]. 『京都大學附屬圖書館六十年史』. 京都 : 同圖書館.
- 森清. 1928. 和漢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圖研究』, 1(3): 17-57.
- 森清 編. 昭和14年[1939].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 及 索引』. 改正增補第4版. 東京 : 問宮商店.
- _____. 昭和10年[1935]. 朝鮮總督府圖書館略史. 『文獻報國』, 1(1).